**예수 중독자 손양원/ 사랑은 무서움을 쫓아 냅니다**



두 아들을 죽인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하고 보살피고 사랑하여서

양 아들로 삼으신 그분,

죽음의 병 한센병에 걸려 오갈 곳 없고 냉대 받으며 서럼움 당하면서

격리 되었던 나병환자들을 위해 온갖 수발을 다드셨던 그분.

나병환자들의 흉칙한 외모와 전염된다는 인식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을때

그 흔하디 흔한 장갑 하나 끼지않고 마스크 하나 착용하지 않고

가족같이 허물없는 거침없는 사랑으로

소외되고 병든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돌보며 치료하였던 그분.

나환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나병에 대한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1요0418. 사랑 안에서는 아무런 무서움이 없으며

대신에 완전한 사랑은 무서움을 내쫓느니라,

이는 무서움은 고통을 가지고 있음이라,

무서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않았느니라.

전설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전설처럼 공산당원에게 순교 당하신 그분.

예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였던 아끼고 아끼고 많이 아끼셨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남긴 글들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이셨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진실한 예수 중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중독자" / 故손양원목사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Tags

사랑 엄위